

# 로켓배송 쿠팡, 코로나 방역도 '로켓급'... 年 5000억 투자

국내 최초 '거리두기 앱' 상용화  
업무과정서 직원 접촉 여지 차단  
QR코드로 방역프로세스 자동화



UV 살균, 2400명 안전감시단, 거리두기 앱 자체 개발, 마스크, 손소독제 직접 제공. 쿠팡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5000억을 투자해 방역·감시에 집중한다.

‘고객안전’과 ‘고객만족’  
두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감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 국내 최초로 ‘거리두기 앱’을 상용화해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했고, QR 코드를 통한 자동 체온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큰 액수의 투자비용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엿보인다.

### ◆국내 최초로 현장 근무자간 거리두기 앱 상용화

쿠팡이 지난 6월 19일부터 전국 물류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앱을 배포했다.

작업자의 PDA에 장착된 거리두기 앱은 작업자가 1미터 이내 공간에 머무르면 알람이 울리고 해당 접촉자가 자

동으로 기록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작업 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해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동으로 기록된 접촉자 명단을 통해 향후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

쿠팡은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앱은 자체 개발팀이 3주 동안 집중 개발하여 완성했다.

### ◆QR코드를 통한 자동 체온측정 시스템 도입

쿠팡이 QR코드를 통한 자동 체온측

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관련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QR코드를 통한 출퇴근 관리는 물론이고 모바일 앱과 연동한 블루투스 체온계를 통해 직원들의 체온까지 QR코드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 작업 없이도 하루 3만 명 이상에 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의심 환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 등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QR코드 관리의 직원은 물론이고 방문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쿠팡은 앱을 활용해 작업자들의 생활 방역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작업자 개개인에게 규칙적으로 발송되는 알람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을 안내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PDA나 PC 등은 중박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업복 및 작업화 등에는 바코드를 부착해 언제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추적한다.

### ◆‘초고강도 거리두기’

쿠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의무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필수 인원만 출근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으며, 지난주까지 잠실 오피스의 75% 이상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해왔다. 또 대면 미팅 가능 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고 사내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도 6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원 간 철저한 거리두기를 시행해 오고 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모든 사업장

에서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먼저 여러명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업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전국의 쿠팡맨들은 배송캠프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개인별 지정된 배송차량으로 곧장 출근한다. 지정 차량에 배정된 상품들을 적재하고 바로 배송에 나서기 때문에 동료와 접촉할 일이 없다.

또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두 배 증차하고, 약 2400명에 달하는 대규모로 ‘코로나19 안전감시단’을 채용해 사업장 내 거리두기 및 정기적인 체온, 증상 여부체크,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준수 등을 관리하는 등 시설과 인력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알베르토 포나로 쿠팡 CFO는 2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연간 약 5000억 원 수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쿠팡의 60만 평의 인프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5만 명의 안전은 물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기꺼이 감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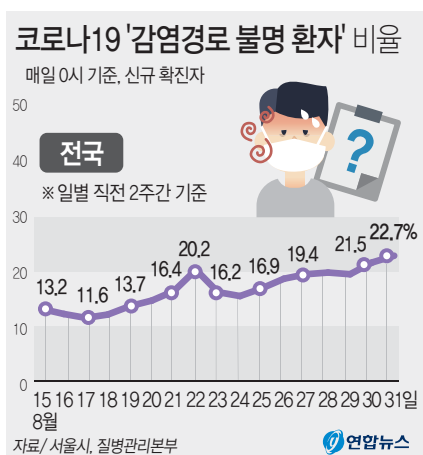
## 누적확진자 2만 근접... 감감이 환자 20%

신규확진자 200명대 중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발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다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른 단계라는 평가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감미’ 환자도 20%를 넘어서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 늘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일(299명)보다 소폭 줄어들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누적 확진자는 1만9947명으로 2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지난 14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세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18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5177명으로 이제까지 국내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지역 발생한 248명 중, 서울 91



명, 경기 79명, 인천 13명 등으로 수도권이 183명을 차지했다. 수도권 외에는 광주·충남이 각 9명씩 나왔고 대전 6명, 울산·전남·제주 각 5명, 부산·대구 각 4명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 수는 이날 정오 기준 1056명으로 늘었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99명으로 늘어났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대에서 줄어들지 않으면서 방역당

국은 긴장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22.7%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의 강력한 조치가 유행을 억제하도록 반전을 이끌어내려면 국민이 모두 함께 철저히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위중·중증 환자가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행해 전과 연결고리를 끊느냐가 향후 코로나19 유행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서울 전역에서 실내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서울시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안하면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마련  
코와 입 보이지 않도록 해야 착용인정

마스크를 걸쳤더라도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코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관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지침에 의하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

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중 ‘일상적 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넣을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요구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김현정 기자 hjk1@

## 산업별로 파급 천차만별... 서비스업 극심

>> 1면 ‘코로나궤 고공추격...’서 계속

노동 충격의 크기는 산업별로도 차별화됐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등 주로 대면접촉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수요·공급하는 업종에서 노동 수요·공급 충격이 크게 발생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부정적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박 과장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대면서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노동 수요·공급 충격의 파급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별, 충격원인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수요충격이 누적될 경우 구조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

음을 고려해 수요충격에 대한 노출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원격근무 확대, 디지털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저숙련 일자리 소멸, 일자리-기술 미스매치 심화 등 취약부문의 고용악화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